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7월 9일(목)

관련자료: 사진자료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개막

- 7월 9일~12일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 소재 ‘르네상스 클럽’에서 개최
- 세계 정상급 선수 156명 출전·우승자에게 상금 약 157만 달러 및 GV60 마그마 모델 수여
- 제네시스 ‘손님 환대’ 철학 바탕으로 선수, 캐디, 골프 팬 위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
- 퍼블릭 라운지 15번 홀로 배치해 대표 관람 공간으로 확대 운영·새 관전 포인트 선사

유럽을 대표하는 남자 프로골프 대회인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2026 Genesis Scottish Open)’이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에 위치한 ‘르네상스 클럽(The Renaissance Club)’에서 개막한다.

현지 시간 7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DP 월드투어, PGA 투어, KPGA 코리안투어 소속 선수 156명이 출전한다.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은 DP 월드투어와 PGA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DP 월드투어 최상위 5개 대회인 ‘롤렉스 시리즈(Rolex Series)’에 속한다.

1972년 ‘스코티시 오픈’으로 시작한 이 대회에 제네시스는 2022년부터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후원 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하며 장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크리스 고터럽(Chris Gotterup, 세계 랭킹 13위)를 비롯해 스코티 셰플러(Scottie Scheffler, 세계 랭킹 1위), 로리



PRESS RELEASE

맥길로이(Rory McIlroy, 세계 랭킹 2 위), 매트 피츠패트릭(Matt Fitzpatrick, 세계 랭킹 4 위)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계) 선수로는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시우(세계 랭킹 22위), 이민우(세계 랭킹 39위), 김주형(세계 랭킹 66위), 임성재(세계 랭킹 80위) 선수가 출전한다. 이와 함께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이정환을 비롯해 최승빈, 옥태훈, 김백준 등 KPGA 코리안투어 소속 선수 4명도 제네시스 초청 선수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900 만 달러(한화 약 136 억 원)이며, 우승자에게는 상금 약 157 만 달러와 함께 GV60 마그마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또한 17 번 홀에서 첫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와 캐디에게는 각각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 가 제공되며, 15 번 홀에서 첫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도 GV60 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제네시스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대회 기간 중 제네시스 차량 135 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르네상스 클럽 곳곳에 ▲GV60 마그마 ▲GMR-001 하이퍼카 1:2 스케일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GV60 등 총 14 대의 차량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인 ‘르망 24시간’에서 처음 공개한 ‘박스 버기(Box-Buggy)’ 콘셉트도 대회 기간 동안 코스 내 전시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핵심 가치인 ‘손님(Son-nim)’ 철학과 한국적



PRESS RELEASE

'환대(Hospitality)' 문화를 바탕으로 선수와 캐디, 골프 팬, 파트너를 위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제네시스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캐디를 위한 전용 휴게 공간인 '플레이어스 앤 캐디스 카페(Players & Caddies Cafe)'를 운영하고, 참가자들의 휴식과 영양을 고려한 식음 서비스와 한국식 다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제네시스는 르네상스 클럽의 홀 순서를 재구성해 일반 관람객을 위해 기존 6 번홀 인근에서 운영했던 '제네시스 퍼블릭 라운지'를 15 번 홀 인근으로 배치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퍼블릭 라운지를 후반 승부처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관전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현장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퍼블릭 라운지 인근에는 '어린이 전용 응원 존(Kids Viewing Zone)'도 마련해 어린이 팬들이 선수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 골프 컬렉션 전시 ▲골프 시뮬레이터(TGL)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경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는 지난해에 이어 일반 갤러리와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15 번 홀 홀인원에 성공한 선수를 예측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답을 맞힌 관람객 1 팀(2 명)에게는 올해 10 월 국내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 초청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6 번 홀 홀인원에 성공한 니코



PRESS RELEASE

에차바리아(Nico Echavarría) 선수를 정확히 예측한 스코틀랜드 출신 맥클라우드 부부는 작년 10월 천안에서 열린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방문한 바 있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이시혁 전무는 “올해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은 대회 운영 전반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선수와 캐디, 갤러리 모두가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환대와 프리미엄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특히 르네상스 클럽 코스 내 홀 플레이 순서를 전면 재구성해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관전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사진설명>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개막

유럽을 대표하는 남자 프로골프 대회인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2026 Genesis Scottish Open)’이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에 위치한 ‘르네상스 클럽(The Renaissance Club)’에서 개막한다.